1965年9月20日　第3種郵便物許可（毎月一日発行）

福音新聞
THE GOSPEL NEWS

在日大韓基督教会
宣教 100～110 周年標語
감사의 백년, 소망의 백년
感謝の百年、希望の百年
（데살로니가전서 5:18）

한글판

shinacho2003@daum.net（담당자）

일본 기독교단 / 재일대한기독교회

2014년 공동 평화 메시지

일본 기독교단 총회 의장 이시바시 히데오
재일대한기독교회 총회장 조중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마태복음 5 장 9 절）

2014 년 7 월 1 일, 아베 정권은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타국의 전쟁에 참여한다" 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각의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것을 포기한다", "육해공군 그 외의 전력은 이것을 보유하지 않는다" 고 명확하게 헌법 9 조에서 주창하면서도, 자위를 위한 군대를 계속 가지면서 주변국과 무력에 의한 직간접적인 대립을 계속해 온 일본의 군사 상황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하여 일본은 정부의 결정에 의해 마침내 "군사력으로 전쟁에 가담할 수 있는 나라" 가 된 것입니다.

또한 2013 년 12 월 26 일 아베 수상에 의한 야스쿠니신사 공식참배를 시작으로 현역 각료와 여당 국회의원들에 의한 야스쿠니 참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반복해서 "참배 자제" 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참배를 하여 국제적인 긴장을 고조시키는 정부 관계자들의 태도는 아시아 여러 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널리 비판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1993 년 미야자와 내각 당시에 나온 이른바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구（旧）일본군의 책임을 인정한 '코노담화' 의 재검토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1 차 아베 내각은 2007 년 3 월에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 연행을 직접 나타내는 기술（記述）도 찾아볼 수 없었다" 는 답변서를 각의 결정하였으며, 이어서 현재 제 2 차 아베 내각은 올해 3 월에 코노담화의 '검증' 을 실시한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코노담화의 작성에 있어서 한일간에 내용의 조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 등을 발표하였으며, 코노담화의 신빙성을 떨어 떨이고, 공식견해로서 가치를 실추（形骸化）시키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전쟁 책임에 대한 역사적 반성을 망각한 역사 수정주의적인 행동으로 한국에서 큰 비난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수년 동안 높아지고 있는 헤이트 스피치（증오를 선동하는 연설）문제는 아직까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증오로 가득 찬 차별 발언들이 여전히 높은 음량으로 흘뿌려지고 있는데 이를 규제하는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제나 "언론의 자유" 가 규제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대의명분으로 거론합니다.

우리　재일대한기독교회와 일본 기독교단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책임에 대한 죄책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상기（想起）하면서 과거의 잘못된 길이었던 전쟁이 가져온 헤아릴 수 없는 희생과 비극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평화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와 평화를 기도하고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표명합니다.

1.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적' 에 대한 공포심과 증오를 부추기고 군사 대국으로서 국가 형태와 자부심을 발양（発揚）시키려고　하는 아베신조 수상을 비롯한 위정자들의 노선에 대해 신앙과 양심에 따라 단호하게 < 아니오 > 를 주창합니다.

2. 우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각의 결정의 즉각 철회와 현재의 평화 헌법의 유지, 그리고 동북 아시아 국가들과의 평화적인 대화를 강력히 요망합니다.

3. 우리는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회피적인 태도에 항의하며, 하루 빨리 피해자 여성들에게 일본 정부에 의한 진실된 사죄와 공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요구합니다.

4. 우리는 적대시하는 두 개를 십자가 아래에서 화해로 이끄시는 평화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적 입장에서 반복되는　증오 연설에 대해 단호하게 저항하면서, 일본 정부에 그와 같은 폭력을 막기 위한 조속한 공적 대책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5. 우리는 쉬지 않고 주변국을 도발하는 오늘날의 정부 각료들에 의한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전국 교회 여성연합회 >
서부지방 여성회와 연수회

지난 6월 26일(목)~27일(금) 전국 교회 여성연합회(선교사회국)과 서부지방 여성회의 공동주최로 연수회(장소 : 神戸ハーバーランド万葉倶楽部)가 개최되었다.

강사는 기독교 전문 장의사 〈라이프 워크사〉 대표이사인 노다(野田和裕)씨였는데, [천국에의 준비 ~ 우리의 믿음과 소망] 이라는 주제로 강의하였다.

개회예배는 김필순목사가 "눈물의 항아리"(눅 7:36 ~ 50)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첫 번째 세미나에서 노다씨는 먼저 크리스천의 죽음과 장례식과 삶을 생각하는 시간을 제시한 후에 기독교 장례에 대한 설명서를 가르쳤다. 마지막으로는 죽음을 준비하는 엔딩 노트에 대하여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마지막 편지 쓰기 숙제를 하게 하였다.

저녁식사 후의 기도와 찬양 시간에는 시온 합창단이 훌륭한 특별찬양을 한 후에 지방회와 총회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였다. 이어진 밤 기도 시간에는 배정애신학생이 현황보고와 간증을 하였다.

둘째 날의 두 번째 세미나에서는 몇 명이 "마지막 편지" 발표하였다. 이어진 납관 체험을 통하여 죽는다는 것과 살아 있다는 생각들을 경험하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어둠 속에서 공포를 느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지금 살아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싶다" 는 등 각각 감상을 밝혔다.

폐회예배는 최춘자목사가 "타인을 섬기는 삶"(막 10:35~45)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4명의 남자 목사를 비롯한 91명의 참가자들은 짧은 시간 이었지만 기독교인으로 죽음을 파악하고 천국에 대비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을 감사하였다.

(보고 : 심정아)

<관서지방회 > 나라교회
강우열목사 위임식 거행

지난 6월 1일(주일) 오후 4시부터 나라교회에서는 강우열목사 위임식이 거행되었다. 예배는 임시 당회장 김종현목사(나니와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김종권목사(히라노교회)가 기도한 후에 조영철목사(오오사카북부교회)가 [목사 위임의 의미](딤전 1:12)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이어서 관서지방회장 김필순목사(사카이교회)의 시식으로 위임식이 거행되었다. 권면은 정연원목사(오오사카교회)가 위임목사와 신도들을 위하여 하였으며, 총간사 김병호목사와 관서지방회 부회장인 유정근장로가 각각 축사하였다.

계속해서 나라교회의 교인들은 축가와 바이올린 연주로 감사하고 축하하였으며, 박 혁집사가 전국에서 온 축전을 소개하고, 홍종옥권사가 기념품을 증정한 후에 강우열 목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답사를 하였다. 강목사는 "나라교회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 나갈 것을 결심한다" 고 말했다.

그 후에 교회를 대표하여 김병석명예장로가 인사 및 광고를 하고, 박진열목사(히라노교회 명예목사)의 축도로 모두 마쳤다.

금번에 나라교회의 위임목사가 된 강우열목사는 나라교회의 담임목사가 되기까지는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인지 교인들은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넘쳤다. 위임식 후의 축하는 여성회가 준비한 바베큐와 더불어 맛있는 식사를 나누면서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더욱 축하하고 축복하였다.

(보고 : 김종현목사)

在日コリアン文化の創造と多文化共生社会を目指して、在日本韓国ＹＭＣＡは皆様と共に歩みます。

東京◆ホテル：東京で一番安く便利な宿泊研修施設。フロントは日・韓・英語に対応、24時間営業。10名様～200名様の会議及び宿泊研修（50名）も可能。
・スペースＹホール：200席の多目的ホール。セミナー・コンサートなどに対応。
・韓国文化教室【チャング・カヤグム・舞踊】・韓国語講座・各種こどもクラス
・ＹＭＣＡ東京日本語学校【3ヶ月～2年、短期研修】
関西◆にほんご教室《新規開講・募集中》韓国民俗芸術科【舞踊・チャンゴ】

税　込	平　日	休・休前日
シングル	¥6,500	¥6,000
ダブル	¥10,500	¥9,700
トリプル	¥13,500	¥12,500

朝食・コーヒー¥200（宿泊者価格）

＊会員及び教職者割引有。詳しくは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在日本韓国ＹＭＣＡ http://www.ymcajapan.org/ayc/jp/
東京韓国ＹＭＣＡ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101-0064　東京都千代田区猿楽町2-5-5　☎03-3233-0611
関西韓国ＹＭＣＡ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537-0025　大阪市東成区中道3-14-15　☎06-6981-0782

<제 10 회 WCC 부산총회 > -6-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이 일련의 경과로도 알 수 있듯이 WCC 란 비슷한 신앙이나 신학적 경향, 윤리적 지향성을 가진 교회 만이 모인 협의체는 결코 아니다. 교파적으로는 로마 카톨릭 (정식 가맹교단은 아니지만 여러 형태로 참여하고 있음), 정교회에서 성령파까지, 윤리적으로는 전통적 가부장제 가족주의를 중요시하는 교단으로부터 LGBT 인권의 적극적 존중에 무게를 두는 교단까지 다종다양한 타입의 기독교회가 모이는 협의회인 것이다.

우리 일본 크리스천들에게는 이미 공통적 명제가 되고 있는 주제가 "탈핵" 이라 할지라도, 다른 지역의 다른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놓여져 있는 신앙자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또 본 회의에서는 성명문 중의 성 (性) 적 소수자에 관한 언급에 대해서 보수교단과 진보교단 사이에서 대립적인 말들이 오가는 장면도 보였다.

이처럼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상대방을 전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대화의 자리에 앉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평화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 로 상대방을 인식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공통적인 항목을 찾아서 손을 잡는 것이다. 서로가 인내하며 받아들이면서 세계 교회협의회라는 하나의 "주님의 몸" 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프로세스가 현재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자리가 바로 WCC 부산총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참으로 아쉬웠던 것은 그런 WCC 총회의 의의와 도전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일부 극보수 교회들에 의한 반대운동이 회장 주변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점이다. "WCC kills church", "WCC 운동은 하나님을 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격노케 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 WCC" 등의 공격적인 멘트가 나열된 프랭카드를 걸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다. WCC 참가단체인양 가장해서 회장 부지 내에서 WCC 규탄책자를 배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또한 선전차량이 큰 음량으로 "하나님의 심판" 을 선포하며 돌아다녔다. 회장 앞에서는 "WCC 를 망가뜨려달라" 고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폐회예배에 진입하여 큰 소리를 외치면서 무대에 올라서는 반대공작까지 저지른 이까지 있었다고 한다.

그들의 주장은 알고 보면 몹시 단순하다. "WCC 는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한다" "WCC 는 동성애를 인정한다" "그래서 WCC 는 적그리스도의 이단조직이다" 라는 논법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WCC 는 세계의 온갖 교파들에 의한 협의체이며, 그 중에는 여러 신학적 입장을 취하는 교회들이 있다.

종교다원주의나 LGBT 이해에 대한 일정한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이해를 둘러싼 대립구조 극복을 위해 대화의 자리에 앉으려는 자세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WCC 반대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려고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단지 자신들의 단순한 원리를 외쳐대고 있었다.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은 보고도 듣지도 않고 오직 부정하려고 하기만 하는 "바보의 벽" (요로 다케시가 만든 용어 / 인간의 이해의 한계점) 이 거기에 있다. 아마도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자들이란 그들 자신들 뿐일 것이다. 그런 절망적인 괴리를 목격하면서 하나님과 인간들, 또 인간과 인간들의 화해를 위해 스스로를 십자가에 바치신 주님의 은혜와 기적이, 몰이해와 적대심이 주의 백성들을 갈라놓는 이 비참한 상황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끝)

(보고 : 허백기 목사 츠쿠바동경교회 / 총회사무국 간사)

<서남지방회 >

권영국목사 소천예배

지난 6 월 15 일 19 시 39 분, 후쿠오까교회의 권영국목사가 십이지장암에 의해 광주기독병원에서 하나님 나라로 소천하였다.

광주에서는 화장만 하고 장례식은 후쿠오까교회에서 6 월 19 일 (목) 오후 7 시부터 전야예배, 그 다음날 20 일 오전 11 시부터 송별예배가 거행되었다.

전야예배는 김성효목사 (지방회서기) 의 기도 후에 서원형목사가 설교하였다. 인사는 총회장 조중래목사가 하였으며, 정연원목사 (전총회장) 가 축도하였다.

그 다음날 송별예배의 사식과 설교는 홍성완목사 (전총간사) 가 맡았으며, 주문홍목사 (지방회부회장) 가 기도하고 최영신목사 (전총회장) 이 축도하였다. 예배 후에 유골은 곧바로 후쿠오까교회 납골당에 안치되었다.

이틀 간에 걸쳐 거행된 장례식에는 후쿠오까교회 교인들, 지방회 교역자와 교인들, 일본기독교단 큐슈교구 교역자들, 일본기독교회 큐슈중회 교역자, 전국에서 많은 총회 교역자들이 달려 와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재회를 소원하며,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을 기도하면서 함께 예배하였다.

유가족인 선우윤실 사모와 권미려 장녀, 권오혁 장남과 후쿠오까교회 위에 하나님의 큰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기원한다.

(보고 : 서남지방회)

< KCCJ 교단창립 80 주년 >
2014 전국 교역자 장로 연수회

지난 7월 13일(주일) 오후 7시부터 15일(화)까지 교육위원회 주최, 선교위원회, 신도위원회, 역사편찬위원회 협력으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 발걸음과 전망 - 교단성립 80주년에 즈음하여] 라는 제목으로 쿄또에서 2014년 전국 교역자 장로 연수회가 개최되었다.

먼저 개회예배는 교육위원장인 전성삼목사의 사회로 김영환부총회장이 기도한 후에 총회장 조중래목사가 [나의 제자 삼으라](마 28:17-20) 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이어서 선교위원회 주최로 천상현목사의 사회로 〈전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먼저 박정근목사(코오리야마전도소)가 피재지역의 교회로서의 교회 역할, 최화식목사(나가노교회)가 치쿠마전도소를 개척하기까지의 과정, 신치선목사(벳뿌교회)가 목회의 비전을 각각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기도하고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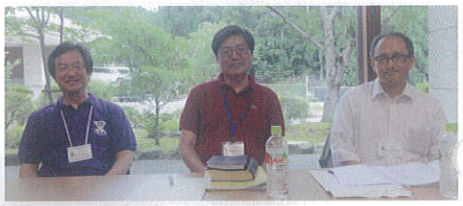
둘 째 날은 김인과목사(기후교회)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막 15:33-41)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아침기도회가 진행되었다. 식사 후에는 김수남장로의 사회로 박상증목사(전 세계 기독교 교회협의회 간사, 전 아시아 기독교 협의회 총간사)가 [재일대한기독교회와 에큐메니칼 운동] 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다.

이어서 여성회 총무인 박영자목사의 사회로 김성제목사가 [샬롬약속을 사는 하나님의 기류자로서 - KCCJ 교단조직 성립 80년을 기억하며 -] 라는 제목으로 성서연구를 발표하였다.

오후에는 분과회를 통하여 세분화 된 토의를 하였다. 제1분과는 사회 나까에요우이찌목사(히로시마교회)의 사회로, 김건목사가 [우리 교회로서의 KCCJ] 를 발제하고, 허백기목사(쯔쿠바동경교회)가 응답 발제를 하였다.

제2분과에서는 정수환목사(토요하시교회)의 사회로, 김성원장로가 [KCCJ 인권운동의 발걸음과 과제] 로 발제하고, 주문홍목사(코쿠라교회)가 응답 발제를 하였다.

제3분과는 김신야목사(요코스카교회)의 사회로, 김수남장로가 [평화통일과 KCCJ] 라는 제목으로 발제하고, 엄창준장로(쿄또교회)가 [선교 과제로서의 남북평화통일 문제] 이라는 제목으로 응답 발제하였다.



저녁식사 후에는 이근수목사(오오가키교회)의 사회로 두 번째 전체토의가 진행되었다.

이 시간에는 처음으로 성명문을 작성하고 채택하고자 서로 노력하면서 진진하게 검토하였다.

이 성명문을 통하여 올해의 연수회를 총괄함과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KCCJ의 방향성도 함께 공유하면서 전진해 나갈 것을 재점검하였다.

이어서 신도위원회 주최로 교류회를 가졌는데 허백기목사의 사회로 전국 여성연합회, 전국 청년회 연합회, RAIK 등이 보고를 하고 김필순목사가 기도한 후에 모두 마쳤다.

마지막 날은 김명균목사(후쿠오까중앙교회)의 인도로 김금순장로(오오사카교회)가 기도한 후에 김목사가 [아침의 햇살처럼] (삼하 23:1-7) 이란 제목으로 설교하며 아침기도회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총간사 김병호목사의 사회로 정재식목사(시모노세끼)가 기도한 후에 임태호목사(동경중앙교회,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 장경태목사(동경성민교회,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합동), 최형철목사(히라오까교회, 대한 예수교 장로회 대신, 박홍순목사(오오사카남부교회, 대한 예수교 총회 백석), 김종현목사(나니와교회,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 이혜란목사(서남지방회, 기독교 대한 감리회)로부터 [선교사들의 목소리] 를 각각 들었다.

폐회예배는 배명덕목사(코베동부교회)의 사회로 주문홍목사(코쿠라교회)가 기도한 후에 전성삼목사(후세교회)가 [하나이니라](요 17:18-22)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특히 폐회예배에서는 고권영국목사 유족들에 대한 합심기도와 헌금을 한 후에 총회장 조중래목사의 축도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보고 : 편집부)

<교회공동성명>

7 월 6 일 와세다에서 있었던 인종적 차별과 증오를 선동하는 행위 (hate speech) 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33-34)

우리는 2014 년 7 월 6 일 오후 , 타카다노바바 (高田馬場) 에서 와세다 (早稲田) 에 이르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 일본기독교 회관과 기독교 시청각센터 (AVACO) 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단체를 표적으로 한 인종적 차별과 증오를 선동하는 행위 (hate speech) 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

「조선 컬트 (cult) 조직범죄 박멸행진 in 高田馬場～早稲田」 라고 명명된 금번 데모는 「외국인 범죄박멸 협의회」 주최 , 「정교분리를 요구하는 모임」 의 후원으로 개최되었습니다 . 주최자는 「반일의 아성 < 일본 기독교회관으로 돌입 !>」 이라고 외치며 일본 기독교 회관과 기독교 시청각센터를 「조선 컬트」 라고 지명하였습니다 .

이 주장은 전혀 사실 오인으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입니다 . 또한 주최 측에서 「공안조례에 따른 데모행진」 이라고 아무리 주장을 하여도 , 이 행위는 재일 한국인과 조선인을 비롯한 재일 외국인에 대한 , 일본이 벌써 비준하고 있으며 인종차별 철폐조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이며 ,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당한 방법에 의해 금지하고 종료시켜야 함이 마땅합니다 .

또한 일본은 인종차별 철폐조약의 체결국으로서 인종간의 분단을 강화하는 것과 같은 어떠한 움직임도 억제할 것과 어떠한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한 인종차별에도 후원하지 않고 , 옹호도 하지 않으며 , 지지하지 말 것은 물론이며 , 국가 및 지방의 모든 공적인 당국과 기관이 이 의무에 따라 행동하도록 확보하기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동 조약 제 2 조 및 제 4 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이름 하에서 인종차별에 의한 헤이트스피치를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라고 외치며 항의데모에 참가한 학생이 경찰 당국에 부당하게 체포되어 10 일간의 구금을 결정한 사실에 큰 슬픔과 분노를 느낍니다 .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 또한 이 세계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을 축복하는 자로서 ,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

(1) 우리는 금번에 인종차별을 선동하는 행위를 한 자들에게 항의합니다 . 그리고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위해 (危害) 를 가하는 선동을 즉시 중단하고 , 헤이트스피치를 통하여 실제로 위해를 가한 것에 대하여 사죄를 요구합니다 .

(2) 우리는 니시토야마 (西戸山) 공원을 집회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회를 용인한 자치단체와 데모 참가자를 유도하며 항의행동의 경비를 담당한 경찰에 대하여 항의합니다 . 「차별의 어떠한 선동 또는 행위를 근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할 것」 (동 조약 제 4 조) 를 지켜야 하는 공적 기관이 두 번 다시 헤이트스피치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와 데모의 신청에 응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3) 우리는 경찰에 부당하게 체포된 학생을 즉시 석방할 것과 동시에 경찰에 의한 이러한 인권침해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요구합니다 .

(4) 우리는 일본 정부에 대하여 일본이 이미 비준한 인종차별 철폐조약에 따라 증오와 차별적 언동의 피해자 구제를 포함한 인종차별 철폐와 인권옹호를 위한 조속한 법적 정비를 요구합니다 .

2014 년 7 월 16 일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교 연락협의회 (외기협) / 일본 NCC 제일 외국인 인권위원회 /
일본 카톨릭 난민 이주 이동자 위원회 / 일본기독교단 재일 한국조선인 연대 특설 위원회 / 재일대한기독교회 사회위원회 /
일본 성공회 정의와 평화 위원회 / 일본 성공회 인권문제 담당자 / 일본 그리스도교회 인권위원회 /
일본 침례 연맹 일한 · 재일 연대 특별위원회 / 일본 침례 동맹 선교부

<관동지방회> 니시아라이교회에서
제 65 회 정기총회

지난 4 월 29 일 (화), 오전 10 시 30 분부터 니시아라이교회에서 관동지방회장 김 건목사의 사회로 < 제 65 회 관동지방회 정기총회 > 가 열렸다 .

배중도장로의 기도 후에 일본기독교단 관동교구 총회의장인 아키야마토오루 목사가 [접붙임을 받은 주님의 가지](로마서 11:13-24)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 김근식목사의 사식으로 성찬식을 거행하였다 .

이어서 김 건목사는 동경교회가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경위와 센다이교회가 지방회 분담금을 내지 못하여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경위도 설명하였다 . 그 결과 , 총대 80 명 (목사 30, 장로 20, 신도 25, 여성회 5) 중 , 60 명 출석 (결석 18, 위임 2) 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하였다 .

내빈 소개와 인사는 다음과 같다 .

일본기독교단 : 奥羽教区邑原宗男牧師 (総会議長), 東北教区石井祐二牧師 (総会書記), 関東教区秋山徹牧 (総会議長), 西東京教区真壁巖牧師 (総会議長), 神奈川教区　三宅宣幸牧師 (総会書記)

일본기독교회 : 東京中会住谷眞牧 (議長), 재일대한기독교회 : 趙重来牧師 (総会長), 在日本韓国 YMCA: 金秀男総務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경북노회 : 김광재목사 (부노회장), 이현윤목사 (서기), 조석원목사 (전노회장), 동 , 경기노회 : 안현수목사 (노회장), 김성교목사 (서기), 권영삼목사 (직전노회장), 심재호장로 (회계), 강흔성목사 (해외교회 교류협력위원장)

이어서 전일광전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 장성준목사가 목사가입식을 하였다 .

◆ ◆ ◆ ◆ ◆ ◆ ◆ ◆ ◆ ◆ ◆ ◆ ◆

점심식사 후에는 각종 보고에 이어서 정규화목사 , 이혜숙목사가 지방회 목사로 위임하는 건 , 동경원천교회가 동경성민교회와의 합병을 전제로 청원한 3 건이 각각 승인되었다 .

그리고 각 교회의 장로증원 (동경교회 5 명 , 니시아라이교회 2 명 , 카와사키교회 1 명 , 시나가와교회 3 명 , 요코하마교회 1 명) 건과 지방회 분립연구회 1 년 연장 건 , 각 부서의 위원으로서의 활동 중에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 사임은 사임서를 제출한 날짜가 아니라 사표를 수리한 날로 하는 것을 내규로 정하자는 건도 승인되었다 .

마지막으로 2014 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후에 , 지방목사 위임식을 거행하고 나서 폐회예배를 하므로 모두 마쳤다 .

(보고 : 편집부)

<관서지방회> 오오사카교회에서
제 65 회 정기총회

〈 관서지방회 제 65 회 정기 총회 〉가 지난 5 월 6 일 (화) 오오사카교회에서 열렸다 . 개회예배는 부회장 유정근장로의 사회로 정일세목사가 "비 소리가 들린다" (열왕기상 18:41-46) 는 제목으로 설교한 후에 김종현목사의 사식으로 성찬식이 거행되었다 .

그리고 지방회장 김필순목사의 사식으로 고 성전도사의 목사 안수식 , 권영훈씨 (무코가와교회) 의 전도사 인허식 , 강우열목사 (나라교회) 의 선교사 가입식이 각각 거행되었다 .

그 후 , 의장이 개회사를 한 후에 서기가 회원점명을 하였다 . 그 결과 , 총대 87 명 중 76 명의 출석을 확인하고 의장이 개회선언을 한 후에 내빈소개와 축사로 이어졌는데 순서는 다음과 같다 . ① 일본기독교단 向井稀夫목사 , ② 대한 예수교장로회 부산 동노회서기 정일세목사 , ③ 재일대한기독교회 부총회장 김성제목사 , ④ 재일대한기독교회 총간사 김병호목사 , ⑤ 재일대한기독교회 서부지방회회장 나까에요우이치목사 .

그리고 나서 회순이 채택되고 , 전 회의록이 승인되었다 .

오후의 의사진행은 각부보고 , 감사보고 , 결산보고가 각각 승인했다 . 이어서 안건심의에서는 (1) 2014 년 예산안이 승인되었다 . (2) 장로 증원 청원 (사카이 1 명 , 쿄토남부 2 명 , 오오사카니시나리 3 명 , 나니와 2 명 , 쿄토 3 명 , 오오사카 3 명 , 오오사카북부 1 명) 도 각각 승인되었다 .

폐회예배는 부회장 김종현목사의 사회로 박성균목사 (서기) 가 기도한 후에 김필순목사가 "함께 고통 받는 마음" (고전 12:22-27)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후에 강우열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 지방회장이 폐회를 선언하니 , 오후 4 시 13 분이었다 .

(보고 : 서기 , 박성균목사)

在日コリアン文化の創造と多文化共生社会を目指して、在日本韓国ＹＭＣＡは皆様と共に歩みます。

東京◆ホテル：東京で一番安く便利な宿泊研修施設。フロントは日・韓・英語に対応、24 時間営業。10 名様～ 200 名様の会議及び宿泊研修（50 名）も可能。
・スペースＹホール：200 席の多目的ホール。セミナー・コンサートなどに対応。
・韓国文化教室【チャング・カヤグム・舞踊】・韓国語講座・各種こどもクラス
・ＹＭＣＡ東京日本語学校【3 ヶ月～２年、短期研修】
関西◆にほんご教室《新規開講・募集中》韓国民俗芸術科【舞踊・チャンゴ】

税　込	平　日	休・休前日
シングル	¥6, 500	¥6, 000
ダブル	¥10, 500	¥9, 700
トリプル	¥13, 500	¥12, 500
朝食・コーヒー¥200（宿泊者価格）		

在日本韓国ＹＭＣＡ http://www.ymcajapan.org/ayc/jp/　＊会員及び教職者割引有。詳しくは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東京韓国ＹＭＣＡ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 101-0064　東京都千代田区猿楽町 2-5-5　☎ 03-3233-0611
関西韓国ＹＭＣＡ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 537-0025　大阪市東成区中道 3-14-15　☎ 06-6981-0782

< 서남지방회 > 시모노세끼교회에서 제 64 회 정기총회

지난 4 월 29 일 (화), 〈 서남지방회 제 64 회 정기총회 〉가 시모노세키교회에서 개최되었다 .

개회예배는 지방회 부회장 강부자장로의 사회로 시작되어 지방회장 김명균목사가 "말씀을 사모한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후에 기도하였다 . 이어서 사회부장 정재식목사의 사식으로 성찬식을 거행한 후에 김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

서기 김성효목사가 총대 출석을 확인한 후 (총대 22 명 중 21 명 참석 : 준총대 5 명 , 방청자 6 명), 지방회장이 개회를 선언했다 . 의사진행에 들어가서는 회순체택을 하고 , 회록서기로 김정명장로 (우베교회) 를 선임했다 . 이어서 서원형목사의 지방목사 위임식이 거행되었다 . 계속해서 신총대와 준총대 , 내빈을 소개하고 박수로 환영하고 점심 정회를 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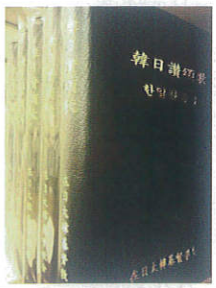
오후 의사진행은 박미웅목사의 기도로 재개되어 , 내빈 (日下部遣志牧師 ; 日本基督教団九州教区副議長 , 新堀真之牧師 ; 同書記 , 이근수목사 ; 총회 서기 , 오오가키교회) 들이 각각 인사한 후에 일동 박수로 환영하였다 .

이어서 전회의록 승인 , 임직원 회의록 , 각부 (전도 , 교육 , 사회 , 청년 , 여성 , 선교협력부 , 재정 , 감사) 보고 , 각 교회와 전도소 보고 , 서남지방회 여성연합회 보고 , 서남지방 연합 청년회 보고는 문서로 승인되었다 . 그리고 서남 KCC 의 보고는 김정자이사장이 했다 .

계속해서 헌의안 심사에서는 후쿠오카 중앙교회 장로 증원 1 명 , 후쿠오카 교회 장로 2 명 선출을 허락했다 . 또한 예산안 심의에서는 회계 김행자장로로부터 설명을 듣고 승인하였다 .

미자막으로 김행자장로의 사회로 부회장 주문홍목사가 "수확은 많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축도한 후에 폐회예배를 모두 마치고 폐회되었다 .

(보고 : 김성효목사)



한일 대조 찬송가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총회사무실로 연락해 주세요 .

1 권 : 2, 000 엔
(총회 교회 가격 , 검정색)

총회사무실 03-3202-5398

豊かな味、豊かな心。

妻家房
SAIKABO

代表取締役 呉 永錫 (東京希望キリスト教会 長老)

四谷本店 : 東京都新宿区四谷3-10-25 Tel. 03-3354-0100

< NCC 한일 장애인 > 제주도에서 합동세미나 개최

지난 4 월 30 일 (수) 에서 5 월 2 일 (금) 까지 〈NCC 한일 장애인 합동 교류 세미나 〉가 제주도 명성 세미나 하우스에서 개최되었다 .

이 세미나는 2 년마다 일본과 한국이 번갈아 가면서 한일 장애인들이 모여서 교류하면서 다양한 과제들을 협의하는 자리이다 . 2002 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7 회 째이다 .

재일대한기독교회는 일본 NCC 의 장애인과 교회 문제위원회에 회원을 파견하고 있는데 , 처음부터 이 교류 세미나의 가교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 NCCJ 측에서는 김병호총간사를 비롯하여 한성현목사 , 김조남장로 , 박희환목사가 참가하였으며 , 일본 NCC 23 명 , 한국 NCC 30 명이 참가하였다 .

4 월 30 일 (수) 은 제주 영락교회에서 환영 리셉션을 가진 후에 수요기도회에 참가하였다 . 세미나 참가자 중에 양동춘목사 (베데스타선교회) 는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뜨거운 메시지를 전했다 .

5 월 1 일 (목) 은 이풍자선생 (KNCC 장애인 소위원회 위원장) 이 기조강연을 하였으며 , 한성현목사와 하시모토카쯔야 사제 (일본 NCC 장애인과 교회 문제 위원장), 최대열목사 (명성교회), 박승우집사 (노와나교회) 가 각각 발제를 하였다 . 계속해서 그룹 토의 및 전체 토의를 거쳐 장애인이 안고 있는 각종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5 월 2 일 (금) 폐회예배는 미야이목사 (宮井武憲 , 일본침례교연맹) 가 메시지를 전하고 , 모든 일정을 은혜롭게 마쳤다 .

또한 지금까지의 교류 세미나의 자료들이 함본되어 간행되었다 . 일본어 , 한국어로 인쇄 된 "장애와 경계를 넘어 하나의 몸이 된 사람들" (역자주) 은 장애인 신학을 생각하고 목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각 교회에서도 꼭 구입하여 장애인들이 안고 있는 과제에 관심을 가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

(보고 : 니시아라이교회 , 한성현목사)

<중부지방회> 나가노교회에 의한 치쿠마 비전전도소 설립식

지난 6월 2일(월) 오후 2시부터 중부지방회에서는 나가노교회가 지난 2년동안 전도에 힘을 쏟아 온 치쿠마(千曲)비전전도소 설립예배 및 제직임명식을 하나님의 은혜와 나가노교회 교인들의 성실한 전도와 중부지방회의 협력과 총회로부터의 축하 속에서 은혜롭게 거행되었다.

전도가 어렵다는 이 시기에 중부지방회 〈제 51회 정기총회〉(5월 5일, 나고야교회)에서는 새로운 전도소 개소에 관한 헌의안이 올라 왔을 때, 총대원들은 믿음과 마음을 하나로 하여 승인하였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기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증거는 나고야교회가 앞장서서 대형 버스를 대절하여서 중부지방회 교회 성도들과 함께 전도소 개소를 축하하기 위해 그 멀리까지 달려 온 것으로 증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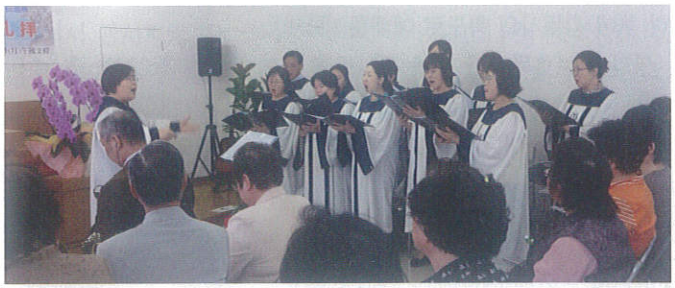
지난 6월 2일(월) 오후 2시부터 중부지방회에서는 나가노교회가 지난 2년동안 전도에 힘을 쏟아 온 치쿠마(千曲)비전전도소 설립예배 및 제직임명식을 하나님의 은혜와 나가노교회 교인들의 성실한 전도와 중부지방회의 협력과 총회로부터의 축하 속에서 은혜롭게 거행되었다.

전도가 어렵다는 이 시기에 중부지방회 〈제 51회 정기총회〉(5월 5일, 나고야교회)에서는 새로운 전도소 개소에 관한 헌의안이 올라 왔을 때, 총대원들은 믿음과 마음을 하나로 하여 승인하였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기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증거는 나고야교회가 앞장서서 대형 버스를 대절하여서 중부지방회 교회 성도들과 함께 전도소 개소를 축하하기 위해 그 멀리까지 달려 온 것으로 증명된다.

치쿠마비전전도소 설립예배는 최화식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박양자장로가 기도한 후에 이광세장로가 성경을 낭독하고, 나고야교회의 성가대원들이 "내가 너와" 을 찬양하였다.

이어서 중부지방회 회장인 김인과목사가 "내 교회를 세운다"(마16:13-20)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진 전도소설립식은 최목사가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고 한 후에 중부지방회 회장 김인과목사가 전도소 설립선언과 감사기도를 했다.

또한 설립식 중에는 최영자, 김경희성도의 제직 임명식도 함께 거행되었다. 그 때, 나가노교회에서 참석한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이란 찬양으로 특별찬양을 했다.



권면을 맡은 김성제목사(나고야교회)는 "적과 전투를 할 때 모세의 양팔을 들어 주었던 아론과 훌처럼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가 되어 거룩함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극복 해 나갈 때에는 서로가 절대로 질투하지 말고,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또한 축사를 맡은 총간사 김병호목사는 "이제 이미 전도소로 태어났기 때문에 요셉이 꿈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꿈이 있는 백성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기 때문에 비전을 가지고 노력해 주세요" 당부하면서 총회로부터의 전도소 설립 축하 금일봉 헌금을 전달하였다.

이어서 오리토(折戸正義, 동맹 복음교단 순회목사) 목사는 "이 전도소는 일본에서 가장 높은 표고(380M)에 위치한 곳이며, 일본열도에서도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전도소이므로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쓰임 받는 전도소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믿고 있다" 며 축하하였다.

또한 나가노교회의 명예목사인 장원세목사도 한국에서 와서 축하하였는데, 장목사는 "전도소가 태어난 후에도 교회와 중부지방회 사이에서 지속적인 양육과 가르침과 상부상조가 중요하다. 하지만, 치쿠마비전전도소가 자립하려고 하는 의지와 헌신의 기도가 더욱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두 사람의 직분자가 임명되고 임직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축하한다" 고 말했다.

또한 중부지방회 부회장 홍영황목사(各務原갈릴리전도소)는 "성도의 생각이나 목회자의 열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전도소가 설립되었음을 축하한다. 또한 여기서 중부지방회의 일원으로서 전도에 힘을 써 달라" 고 각각 축사를 하였다.

그리고 김진명안수집사(나가노교회)가 전국에서 날아 온 축전을 피로하였다. 이어서 최목사의 광고와 안내, 김인과목사의 축도로 2시간 정도의 설립예배를 모두 마쳤다.

금번 치쿠마비전전도소 개소로 인하여 중부지방회는 이제 9개의 교회와 4개의 전도소가 소속하게 되어, 총 13교회가 되었다. 치쿠마 비전전도소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나가려면 전국에서의 기도와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일본 전도의 희망과 열매를 맺게 해 준 하나님의 역사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보고 : 편집부)